

# “교사의 교육권, 안정적으로 행사해야”

###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교육권 강조 교육부장관 부동의 관련해서는 대법원 제소키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또다시 교사의 교육권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의 교육권은 수업권을 정점으로 해서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상담권, 진로진학지도권 등이 있다”면서 “이같은 교육권은 교사가 자

기 권한과 책임에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사의 교육권이 아무런 경계도 없이 침범당하거나 방해받을 때의 불이익은 그대로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사가 교육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밝혔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당한 교사를 대신해 직권으로 고소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국가가 교육을 전면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충돌을 일으킬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작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시도교육청이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부동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면서 “차분히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융합SW교육원이 전교생 대상 실무역량강화 5번째 장단기 강좌로 최근 마이크로비트 파이썬 특강을 진행했다.

### 원광대, 전교생 대상 SW실무역량강화 강좌 실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SW중심대학사업단 융합SW교육원은 전교생 대상 실무역량강화 5번째 장단기 강좌로 최근 마이크로비트 파이썬 특강을 진행했다. 영국 국영방송 BBC에서 쉽고 재미있는 코딩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켓 크기의 초소형 컴퓨터인 마이크로비트(micro:bit)는 개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LED와 버튼, 센서, 유에스비(USB), 무선 통신 등으로 구성된 간단한 게임부터 로봇, 전자 악기까지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비트는 블록 프로그래밍 기반 및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

용 등 두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파이썬을 사용한 프로그래밍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뛰어난 방법으로 인식돼 있다. SW 비전공자 위주로 5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은 메이커팩토리 효자문연구소 황은숙 소장이 강의를 맡았으며, 마이크로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익히기부터 마이크로비트의 내장함수(built-in function)를 이용한 센서 동작과 프로젝트까지 진행함으로써 마이크로비트 활용도를 극대화해 관심을 끌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양성평등 페스티벌' 개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오는 31일 센터 대강당에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학·성(소소하지만 확실한 양성평등)을 주제로 '전국릴레이 양성평등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국릴레이 양성평등 페스티벌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협의회 소속 전국 11개 기관에서 지역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행사를 릴레이로 이어가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사회 성차별적 인식개선 및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 조성



전북교육청이 최근 도교육청 8층에서 '함께 생각하며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국외현장체험활동' 발표회를 개최했다.

### '함께 생각하며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 도교육청, 프랑스·독일 현장체험활동 발표회 개최 도내 고교생 23명, 6박 8일간 국외 시민교육 현장탐방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최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함께 생각하며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국외현장체험활동'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주시민교육 국외현장체험활동은 도내 고등학교 2학년 23명과 인솔교원 5명 등 총 2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 인권, 통일, 평화를 주제로 한 모듈별 발표와 소감문 발표가 이어졌으며, 민주시민교육 지역별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실천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주요 일정은 ▲파리 시민혁명과

관련된 주요 역사적 장소 탐방 ▲주프랑스한국교육원 송세경원장의 민주시민교육 이야기 ▲프랑스 민주시민교육 세미나 ▲독일 분단과 통일의 역사적 장소 탐방 ▲독일 민주시민교육 이해하기 베를린 주정치교육원의 독일 통일과 정치교육 강의 등이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 인권, 통일, 평화를 주제로 한 모듈별 발표와 소감문 발표가 이어졌으며, 민주시민교육 지역별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실천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장은성 기자

유화연 학생은 “프랑스, 독일의 민주주의와 통일 관련 역사적 장소를 돌아보며 침묵하지 않는 시민은 위대하다는 걸 느꼈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참여정신이 이룬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국외현장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직접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민주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논의와 사고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도국제교류센터,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성료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최연호)과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 한-아프리카외교포럼, 아프리카 연합이 후원하는 제1회 2019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캠프에서는 가나, 나이저리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카메룬,

케냐 등 아프리카 12개 국가 40명의 학생들과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전주, 정읍 등 전북지역 고교생 37명을 포함한 40명의 한국 학생들이 8월 6일부터 12일까지 6박 7일간 서울과 전북도에서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 도교육청, 배움과 성장의 참학력 신장 강화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배움과 성장의 참학력 신장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12일 8층 회의실에서 초·중등 교육전문직 4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참학력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 교사 집단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견인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019 참학력 신장을 위한 수업헌마당 및 수업나눔 등 사업계획을 공유

하고, 2020 학력신장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학습공동체 중심 수업나눔 ▲과목별 깊이 있는 수업나눔 ▲학습공동체와의 만남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의 실천적 경험 나눔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중심 학교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교사동아리, 연구회, 수업 나눔 모임 등 학교 안·학교 밖 학습공동체의 소통과 연대로 지역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